



“조용조용히 눈이 왔어요.
조용조용히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도 왔어요.”

추운 겨울날, 마음속에 쌓이는
따뜻하고도 그리운 눈사람과의 추억 이야기.
수수바와 눈사람 친구의 우정과 그리움의 시간이
아름다운 겨울의 풍경과 함께 그려집니다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2023 . © 조미자

조미자



조용조용히 눈이 왔어요.

조용조용히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도 왔어요.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 2023 . © 조아자



“눈이 왔어!
눈이 왔어!
눈사람 친구도 왔어!”

수수바는 눈사람 친구를 꼭 안아 주었어요.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 2023 . © 조미자





“동글동글한 발이 미끄러워 보여.”
수수바는 커다란 눈을 굴려서
눈사람 친구에게 겨울 부츠를 만들어 주었어요.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 2023 . © 조미자



“강물이 뽕뽕 얼었을 거야”.
수수바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태워줄게!”
수수바와 푸푸, 코코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눈썰매를 탔어요.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 2023 . © 조미자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들이 깃털처럼 내려와!”
“나도 널 만나러 깃털처럼 내려왔지.”
수수바는 커다란 눈사람 친구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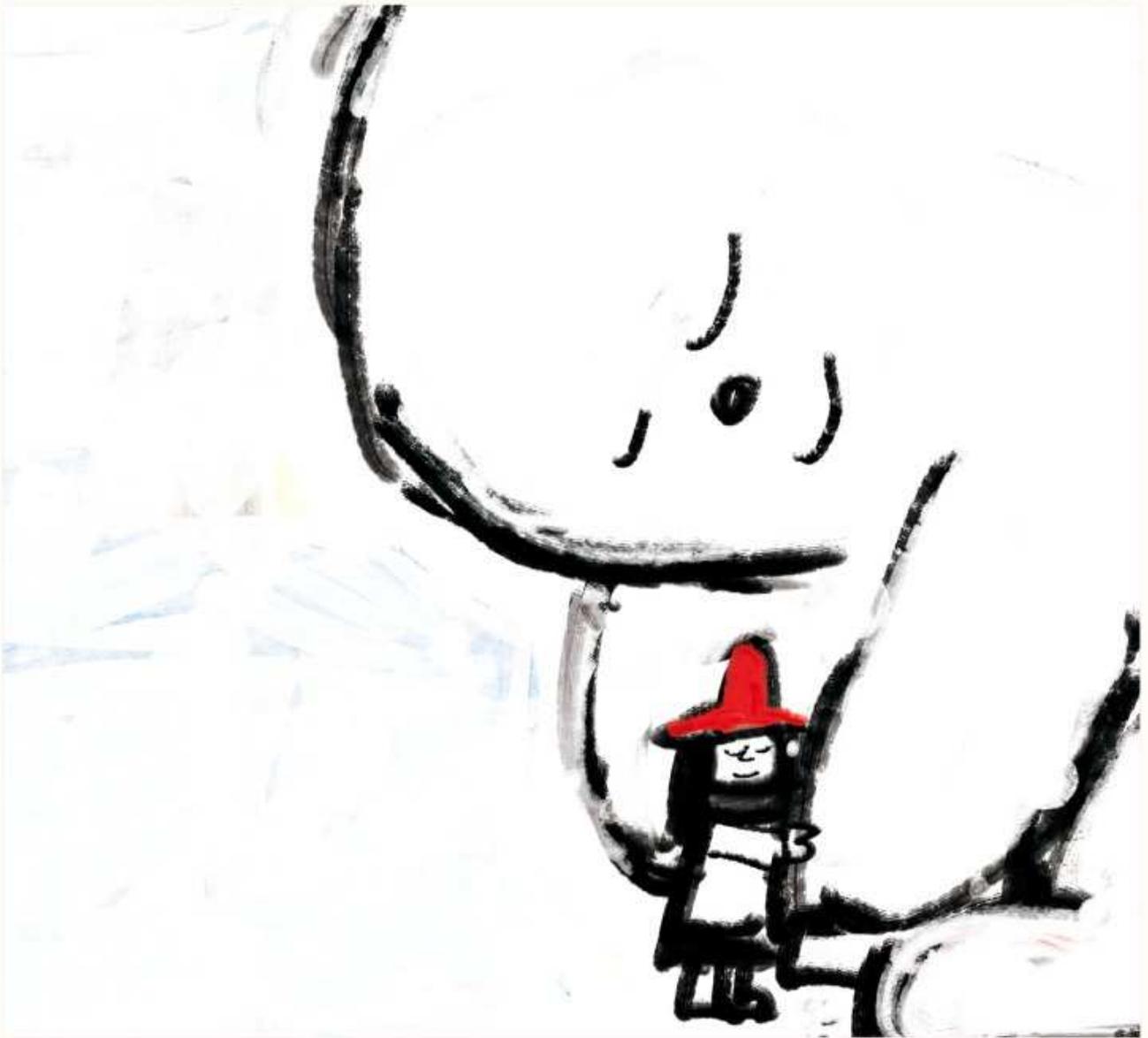


“그럼, 하루 종일 장난감 마을을 돌아다녀야지!”
눈사람 친구가 말했어요.



“눈이 올 때마다 널 기다릴 거야. 보고 싶을 테니까.”
수수바가 말했어요.

“나도 깃털처럼 내려올 거야.
같이 발자국 그림을 그려야지.”
눈사람 친구가 웃으며 수수바를 바라보았어요.



다시 조용조용히 눈이 내려요.
눈사람 친구는 수수바를 꼭 안아 주었어요.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2023, © 조미자